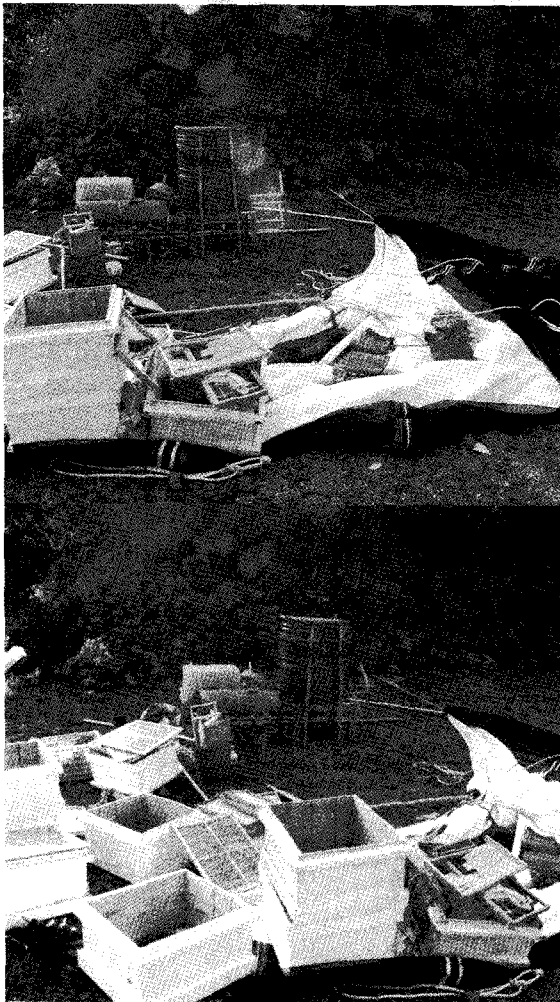


양봉협회

제주 양봉농가 강풍 피해 조사 실시

3개 농가 450군 벌통 파손 및 유실돼
협회, 농림부에 지원방안 조속실시 촉구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4월 20일 아침에 발생한 제주시 일대의 강풍 및 폭우로 인한 양봉농가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23일 양일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협회 이상철 연구소장과 제주 양광식 지회장, 김형후 제주 분회장,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의 이명렬·최용수 박사가 이번 현장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피해 양봉농가(방영일, 현순문씨 외 1명)의 피해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이번 제주 양봉농가 피해는 갑작스런 돌풍과 폭우로 제주자치도 제주시 일대(애월읍, 제주대 인근 등)의 양봉농가의 벌통이 파손되고 유실되었으며 4월 24일 SBS 뉴스에 방송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사된 피해규모로는 3개 농가 450군 정도(약 7천만원 상당)이다. 이에 양봉협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갑작스런 천재지변 발생에 대한 대처요령에 대

해 농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 농업과학원 역시 현지 피해 봉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과 병해충 관리 등 지속적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봉**